『종교학연구』 제33호
한국종교학연구회, 2015, pp. 77-94.

상주 동학교 선천회복 사상 일고(一考)

박 병 훈*

目 次

Ⅰ. 서론
Ⅱ. 초기동학의 시운관(時運觀)과 비기도참과의 비교
Ⅲ. 동학교의 선천회복 사상
Ⅳ. 결론

Ⅰ. 서론

경북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에 자리잡고 있는 동학교는 교당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典籍), 판목(板木), 복식(服飾), 교기(敎旗), 의기(儀器) 등 289종 1,425점의 방대한 국가지정기록물[1]들을 이번 8월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9월 제1회 상주동학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교가 담고 있는 사상적 특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동학교는 체천(體天)주의, 선천회복(先天回復)사상, 정교분리(政敎分離)를 흔히 세 가지 핵심 사상으로 꼽는다. 이 글에서는 그중 선천회복 사상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2] 동학교에 대해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1) 국가지정기록물 제9호로 2013년 12월 지정되었다.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나,[3] 이들 핵심 사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바가 많다.

동학교의 선천회복 사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처음 시도한 이는 동학가사 해제를 단 최원식일 것이다.[4] 그는 선천회복을 천도교의 후천개벽과 대비시킨다.

구 분	동학교	천도교
선천 인식	조화로운 세계	최제우 이전. 타락한 세상.
후천 인식	타락한 세계	최제우 이후. 선천의 극복.
역사관	순환사관	진보사관
다가올 세계에 대한 태도	소극적 기다림 중시	인간의지의 적극적 개입 중시

표. 최원식의 논의.

이 논리는 간명하게 천도교와의 선후천 관념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이후 연구들에서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진다.[5] 최원식의 논의는 다만 천도교와의 비교라 초기 동학과는 어떤

2) 일전 필자는 체천 사상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전 논문의 연장선 상에 있다. 박병훈, 「상주 동학교 體天사상 재고」, 『宗敎學硏究』 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73-90.

3) 일차적으로 40권의 『용담유사』 가사 자료로 문학 쪽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출판, 의복, 건축양식 등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동학교 일반과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가장 상세하다. 김문기·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9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6), 161-205.

4) 최원식, 「동학가사 해제」, 『동학가사』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5) 최원식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약간의 논의들이 덧붙여졌다. 김상일은 전·후기 동학가사라는 틀을 이용하여, 전기 동학가사의 후천개벽 사상이 후기 동학가사에서는 선천회복 사상으로 변모되었다고 하며 '운수'가 가장 강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김상일, 「상주지역 동학교단의 활동과 동학가사」, 『동학학보』 12 (서울: 동학학회, 2006): 190-192.) 최종성의 경우 선천회복사상에 대해 <知時明察歌>를 인용하며 복희씨, 석가여래, 야소씨, 수운과 청림 등(곧 '성인')이 선후천의 교차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식으로 대비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크게 보았을 때 한말일제하의 다른 신종교에서 후천 개벽을 강조하는 것과 동학교의 선천 회복이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도 물론 알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선 동학교의 선천회복 사상이 초기동학의 사상과 연계선 상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동학이 『정감록』류의 비기도참서의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학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천 회복으로 대표되는, 때에 대한 인식이며 이 가운데 성인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초기동학의 시운관(時運觀)과 비기도참과의 비교

1. 수운의 시운관: '윤회가치 둘닌 운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는 '선천(先天)', '후천(後天)' 등의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6] 한편 '개벽(開闢)'이란 용어는 『동경대전』에는 나오지 않으며 『용담유사』에만 등장한다.[7] 곧 초기동학의 선천회복과 후천개벽에 대한 인식을 단언할 수 없으며, 최소한 이 경전들이 후천 개벽 사상을 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적한다.(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228-229.) 그러나 주된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에 더 이상 깊게 다뤄지고 있지는 못하다. 필자는 이들 연구에서 '운수'와 '성인'에 주목한다.

6) 이러한 점은 다음의 책에도 잘 지적되어 있다.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74. 한편 한우근도 이미 동학에 있어 운수, 시운관이 뿌리 박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수순환'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東學(思想)은 後天開闢, 地上天國을 豫言한다'고 말하며 동학의 개벽관을 후천개벽으로 당연하게 여긴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한우근, 「東學思想의 本質」, 『동방학지』 10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9))

7) 이는 '개벽'사상이 초기동학에 있어 생각보다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용담유사』의 경우 개벽이란 용어는 5차례 등장하고,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다시 개벽'이라는 용어로 쓰였다. 그리고 이 '다시 개벽'은 '괴질 운수'라는 용어와 두 차례 모두 함께 쓰였다. '개벽'만 단독으로 쓰인 경우의 3차례는 모두 하늘님과 관련지어 쓰였다. 이에 대한 함의를 좀 더 곱씹어 볼 만하다.

그러나 때에 대한 인식, 시운관은 동학에 있어서 근본적이어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동학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동학의 순환적 시운관을 살펴 보도록 하자.

>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성(九星)이 있어 구주(九州)에 상응한다. 땅에는 팔방(八方)이 있어 팔괘(八卦)에 대응한다. 그리하여 차고 기욺이 서로 간에 바뀌는 운수는 있으나, 움직이고 고요함 자체가 바뀌는 이치는 없다.[8]

> 텬운이 순환ᄒᆞᄉᆞ 무왕불복 ᄒᆞ시ᄂᆞ니(「교훈가」)

> 시운을 의논히도 일성일쇠 안일넌가 쇠운이 지극ᄒᆞ면 성운이 오지마ᄂᆞᆫ(「권학가」)

> 유도불도 누쳔련의 운이 역시 ᄃᆞ히쩐가 윤회가치 둘닌 운수 닉가 엇지 바다스며(「교훈가」)

> ᄎᆞᄎᆞᄎᆞᄎᆞ 증험ᄒᆞ니 윤회시운 분명ᄒᆞ다(「권학가」)

차고 기우는 것은 서로 바뀌는 운수가 있으며(「論學問」), 천운은 순환하며 가면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교훈가」). 시운은 한 번 쇠하면 또 성하게 되어 있다(「권학가」). 그리고 '윤회같이 둘린 운수'(「교훈가」)는 '윤회시운'(「권학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인데, 여기의 '윤회'라는 용어는 '盈虛迭代', '순환', '무왕불복', '일성일쇠'와 같은 맥락의 용어이다. 곧 동학의 시운관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윤회시운이며, 이는 최원식이 논했던 순환사관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성인이 이 시운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자 한다. 『동경대전』의 「포덕문」을 텍스트로 삼고 분석을 진행해 보겠다.

> ①먼 옛날 이래로 사시사철이 오가며 성쇠함은 바뀌지 않았으니 이는 역시 하늘님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밝히 드러난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

---

8) "故天有九星, 以應九州, 地有八方, 以應八卦, 而有盈虛迭代之數, 無動靜變易之理."(「論學問」)

이 넓고도 큰 하늘님의 은혜는 모른 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②오제(五帝) 이후로부터 성인이 태어나 해와 달과 별의 천지도수를 책으로 써 내어 천도(天道)의 원리를 확정하였다. 동정(動靜)과 성패(成敗) 간의 변화를 천명에 부치었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여 천리를 따르는 것이다. ③이 때문에 사람이 군자가 되었으며, 공부는 도덕을 이루었다. 도는 천도이며 덕은 천덕이니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아서 군자를 이루고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니 어찌 흠탄(欽歎)치 않겠는가! ④요즘에는 세상 사람이 제각각으로 마음을 삼아 천리에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두려워 그 갈 바를 모르는구나.[9]

①은 항상된 시간의 순환적인 운행이 하늘님의 조화로 인한 것임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곧 순환적 시운관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②는 오제 이후 성인이 나면서 일월성신과 천지의 도수를 관찰하고 글로 지어 내면서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에 따르게 되었음을 말한다. 곧 문화영웅적인 성인의 탄생으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글을 통해 전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③에서는 이러한 성인을 통해 사람들이 도덕을 배워 군자가 되고 또한 성인이 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④에서는 최근 들어 사람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각자위심함으로서 갈 바를 모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곧 성인의 역할이 퇴조된 것이며 현재의 세계는 과거의 세계보다 못한 세계라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하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성인이 재차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도덕을 가르쳐야만 가능하다. 수운은 이 역할이 당대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서학에 맡겨질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과연 그러한가 의심을 품었고, 결국 천명은 수운에게 내리게 된다.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시운에

9)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 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券, 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 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 而順天理者也. 故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 而修其德, 故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布德文」)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 악질이 계속되며, 백성들은 한시도 편할 때가 없다. 이는 역시 상해의 운수이다. 서양은 싸워 이김과 공격하여 빼앗는 데 있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중국이 멸망하면 역시 순망지탄((脣亡之歎)이 없을 수 없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오겠는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시운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구나! 내 말을 듣고는 들어가서는 마음으로 그릇되다고 생각하고 나와서는 길거리에서 수군대니 도덕을 따르지 않음은 심히 두려운 일이다. 현명한 이들은 이를 듣고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가 장차 개탄하더라도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소홀하게나마 간단히 적어 내어 보이고 깨우치니, 이 가르치는 글을 삼가 받고 그 가르치는 내용을 공경히 여기라.[10]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찬 악질[11]로 인해 한시도 편한 때가 없고, 이를 시운상 상해(傷害)의 때라고 수운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시운을 모르며 현명한 사람들도 그를 듣고 의심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시운을 파악한 수운은 옛 성인이 그러하듯 자신 또한 이 시운에 대해 깨달은 바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이는 천의 시운과, 그러한 시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매개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운이 맡게 되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과거의 성인들과 같은 자격을, 새로 오는 시운을 맞이하여 수운이 얻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한편 과거의 성인들과 수운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수운은 '괴질' 등으로 힘든 고비를 겪게 될 '다시 개벽'의 운수를 인식하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

10) "是故我國, 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攻取, 無事不成, 而天下盡滅, 亦不無脣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 則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德,心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 而吾將慨歎, 世則無柰, 忘略記出, 諭而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布德文」)

11) 『동경대전』에서는 '악질' 용어가 1차례 등장한다. 『용담유사』에서는 '괴질'로 5차례 표현되나, '악질'로 나올 때도 있다. "이가치 아니말면 경외지심 고ᄉᆞᄒᆞ고 경명순리 ᄒᆞ단말가 허다ᄒᆞᆫ 세상**악질** 물약ᄌᆞ효 도얏스니 그이코 두려으며"(「도덕가」 강조 필자.)

텬운이 둘너시니 근심 말고 도라가셔 윤회시운 구경ᄒᆞ소 십이제국 괴딜운수 다시ᄀᆡ벽 안일넌가 터평셩세 다시졍히 국터민안 홀거시니 ᄀᆡ탄지심 두지말고 ᄎᆞᄎᆞᄎᆞᄎᆞ 디닛셔라 ᄒᆞ원갑 지너거든 상원갑 호시졀의 만고업ᄂᆞᆫ 무극ᄃᆡ도 이세상의 날거시니 너ᄂᆞᆫ ᄯᅩᄒᆞᆫ 연천히셔 억됴창싱 마는빅셩 터평곡 격양가를 불구의 볼거시니 이세상 무극ᄃᆡ도 젼디무궁 안일넌가(「몽중노소문답가」)

돌고 도는 '윤회시운'은 '십이제국 괴질운수'로 연결된다. '다시 개벽'의 시기에 온 세상이 괴질에 처하게 되는 가혹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원갑이 지나갈 때의 일이요, 상원갑이 오게 되면[12] 억조창생들이 태평곡과 격양가를 부르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련ᄒᆞ다 가련ᄒᆞ다 아국 운수 ᄀᆞ련ᄒᆞ다 뎐세 임진 몃힐넌고 이빅ᄉᆞ십 안일넌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ᄀᆡ벽 안일넌가 요순셩세 다시 와셔 국터민안 되지마ᄂᆞᆫ 괴험ᄒᆞ다 괴험ᄒᆞ다 아국운수 괴험ᄒᆞ다 ᄀᆡ 갓튼 왜적놈아 (중략) 젼세임진 그써라도 오셩ᄒᆞᆫ음 업셧시면 옥시보젼 뉘ᄀᆞ홀고 아국명현 다시 업다 ᄂᆞ도 ᄯᅩᄒᆞᆫ ᄒᆞ놀님게 옥시보젼 봉명ᄒᆞ니 무병지ᄂᆞᆫ 지닌 후의 ᄉᆞ라ᄂᆞᆫ 인싱드른 ᄒᆞ놀님게 복록 졍히 수명을ᄂᆞᆫ 니게 비니 (중략) ᄒᆞ놀님이 니몸니셔 아국운수 보젼ᄒᆞ니(「안심가」 밑줄 필자)

임진왜란(1592) 때의 국가적 위기에 오성과 한음이 있었던 것처럼, 수운은 무병지란[13]의 때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운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요순성세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수운은 자신을 음해하는 이들에게 괴질을 경고하기도 한다. 곧 그들에게는 괴질을 피할 수운의 방도가 통하지 않는다.

ᄂᆞ도 ᄯᅩᄒᆞᆫ ᄒᆞ놀님게 분부 바다 그린 부를 금수 가튼 너의 몸의 불ᄉᆞ약이

12) 상원갑, 하원갑의 설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22-24. 이 글에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13)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ᄀᆡ벽 안일넌가'의 용어를 생각해 볼 때 괴질과 연결됨을 파악할 수 있다.

> 미츨소나 가소롭다 가소롭다 너의 음해 가소롭다 (중략) 이달ᄒᆞ다 이달ᄒᆞ다 너의 음히 이달ᄒᆞ다 우리야 저럴딘던 머ᄌᆞ는 셰월의도 괴딜 발일 졍이 업다 쒸고 보고 죽고 보세(「안심가」)

수운이 괴질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과연 수운은 어떤 논리를 통해 괴질운수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 흠디ᄉᆞ디 출싱들아 보국안민 엇디홀꼬 ᄃᆡ져인간 초목군싱 스싱지텬 안일넌ᄀᆞ 불시풍우 원망히도 임스호텬 안일넌가 삼황오제 성현들도 경텬순텬 안일넌가 효박ᄒᆞᆫ 이 세상의 불고텬명 ᄒᆞ단말가 (중략) 근본죠ᄎᆞ 이즐소냐 가련ᄒᆞᆫ 세상ᄉᆞ람 각ᄌᆞ위심 ᄒᆞ단말가 경텬순텬 ᄒᆞ엿스라 효박ᄒᆞᆫ 이 세상의 불망기본 ᄒᆞ엿스라 임군의게 공경ᄒᆞ면 충신열ᄉᆞ 안일넌ᄀᆞ 부모님게 공경ᄒᆞ면 효ᄌᆞ효부 안일넌가 (중략) 그말져말 다던디고 ᄒᆞ놀님을 공경ᄒᆞ면 아동방 삼년괴딜 죽을염녀 잇슬소냐 허무ᄒᆞᆫ 너의풍속 듯고ᄂᆞ니 졀창이오 보고ᄂᆞ니 긔탄일세 ᄂᆡ역시 ᄉᆞ십평싱 힌음업시 지ᄂᆡᄂᆞ니 이제야 이 세상의 홀연이 싱각ᄒᆞ니 시운이 둘너썬가 만고업ᄂᆞᆫ 무극ᄃᆡ도 이세상의 창건ᄒᆞ니 이도 역시 시운이라 일일시시 먹ᄂᆞᆫ음식 성경이쯔 디켜ᄂᆡ야 ᄒᆞ놀님을 공경ᄒᆞ면 ᄌᆞ아시 잇던 신병 물약ᄌᆞ효 안일넌ᄀᆞ(「권학가」 밑줄 필자)

죽고 사는 것은 곧 하늘에 달려 있다〔死生在天〕. 옛 성인들이 하늘을 공경하고 따른 바〔敬天順天〕와 같이 해야 하며 근본을 잊고 각자위심하면 안 된다. 이는 마치 임금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와 같다. 곧 하늘님을 공경하면 삼년괴질에도 죽지 않는다. 이러한 하늘님을 공경하는 법은 결국 시운에 따른 무극대도, 즉 동학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誠敬)을 지키는 것이다. 일종의 도덕을 통한 천인상관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초기동학과 정감록류 비기도참과의 연결성

정감록류의 많은 비결들은 앞으로 올 참혹한 괴질·재난·전쟁 등을 예언하며, 십승지 등의 구제책을 통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이들 비기도참은 권위있는 인물의 이름을 가탁하여 그 신빙

성을 더하고, 비유·파자 등의 방식으로 신비함을 강조하며 정도령으로 대표되는 진인·성인 등의 출현을 말하기도 한다. 백승종은 정감록이 동학, 증산교, 원불교 등 한국의 대표적인 신종교를 낳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4] 곧 정감록류는 이 현 세계에 앞으로 전쟁, 흉년, 병겁 등의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며, 십승지·진인 등으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는 미륵하생경에서 묘사되는 선경 등이 펼쳐진다고 한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세 계	⇒	앞으로의 재 난	⇒	재난을 피할 방책과 그로 인한 구원	⇒	선 경

〈도표1. 정감록류의 시운관〉

이렇듯 민중에 널리 수용된 믿음을 동학은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고이ᄒᆞᆫ 동국참셔 취켜들고 ᄒᆞᄂᆞᆫ말이 이거임진 왜ᄂᆞᆫ쩌ᄂᆞᆫ 이지송송 ᄒᆞ여잇고 가산졍쥬 셔졕쩌ᄂᆞᆫ 이지가가 ᄒᆞ엿더니 어화세상 ᄉᆞ람들아 이런일을 본바ᄃᆞ셔 싱활디계 ᄒᆞ여보세 딘ᄂᆞ라 녹도셔ᄂᆞᆫ 망딘ᄌᆞᄂᆞᆫ 호야라고 허츅방호 ᄒᆞ엿다가 이세망국 ᄒᆞ온후의 셰상ᄉᆞ람 아라스니 우리도 이세상의 이지궁궁 ᄒᆞ엿ᄃᆞ니 (중략) 혹은 궁궁촌 ᄎᆞᄌᆞ가고 혹은 만쳡산듕 드러가고 혹은 셔ᄒᆞᆨ의 입도ᄒᆡ셔 각ᄌᆞ위심 ᄒᆞᄂᆞᆫ말이 ᄂᆡ올코 네그르지 (중략) 가련ᄒᆞᆫ 셰상ᄉᆞ룸 이지궁궁 찻ᄂᆞᆫ말을 우실거시 무어시며 불우시디 ᄒᆞᆫ탄말고 세샹구경 ᄒᆞ여스라 송송가가 아라스되 이지궁궁 엇디알고 텬운이 둘너시니 근심말고 도라가셔 윤회시운 구경ᄒᆞ소 십이졔국 괴딜운수 다시기벽 안일넌가 (중략) ᄒᆞ원갑 지ᄂᆡ거든 상원갑 호시졀의 만고업ᄂᆞᆫ 무극ᄃᆡ도 이셰상의 날거시니(「夢中老少問答歌」. 밑줄 필자)

14)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서울: 푸른역사, 2012), 133. 한편 “동학에서도 새 세상이 열리면 동학의 가르침대로 수련을 쌓은 군자들이 지상천국을 맡아 다스린다고 보았다.(p. 91)”라고 적시하기도 한다.

괴이한 동국참서, 곧 정감록류의 비기도참서를 해석[15]하여 나오는 이재송송, 이재가가, 이재궁궁 등의 용어를 동학의 시각에서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전의 이재송송, 이재가가란 말을 통해 사람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이재궁궁이란 말에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궁궁촌을 찾아가거나 만첩산중에 들어가거나 서학에 입도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가련한 것이고 '궁궁'으로 대표되는 동학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란과 호란과도 같은 가혹한 괴질운수의 때를 '궁궁', 곧 동학을 통해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감록류의 도식을 빌어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큰 부분에서의 얼개는 상통하리라 본다. 다만 정감록류의 시운관은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일직선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하원갑의 현재세계	⇒	다시개벽과 괴질운수	⇒	수운의 무극대도 (궁궁)	⇒	상원갑 호시절

〈도표2. 초기동학의 시운관〉

Ⅲ. 동학교의 선천회복 사상

동학교의 시운관은 초기 동학 개념의 연속선 상에 있다. 운수는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회복한다. 이는 『용담유사』와 마찬가지로 '다시 개벽'으로 대표된다. '다시 개벽'의 때는 괴질 등의 환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하늘은 성인을 내어 구하게 한다. 물론 초기 동학에서 이러한 점들을 후천 개벽이나 선천 회복으로 표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시 개벽'의 시간관은 천도교 등에서

15) 파자풀이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이재송송(利在松松)은 '活我者誰 十八加公', 이재가가(利在家家)는 '活我者誰 豕着冠', 이재궁궁(利在弓弓)은 '活我者誰 身人血'의 파자 풀이와 연결된다.

이야기하는 후천 개벽보다는 동학교의 선천 회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공통점의 기반 위에서 동학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여준다.

첫째, 잘 드러나지 않던 역(易)의 논리가 전면에 내세워지며, 둘째, 이 역의 논리로 설명된 시운관이 성인과 긴밀히 연결되고, 셋째, 성인의 문하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비기도참의 논리를 끌어 들여 입도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1. 시운과 역의 논리

> 先天之數 龍馬負圖 八卦定數 그가온ᄃᆡ 順數짜라 定ᄒᆞᆫ甲子 壬子水로 爲始하여 木德以旺 하든이만 循環之理 그가온ᄃᆡ 逆數之運 다시와셔 龜尾洛書 回復되니 六十甲子 變復되야 逆數짜라 方位定코 時中짜라 施行할제 甲戌乙亥 運數委처 爲始히셔 丙午丁未 기운짜라 火德으로 昌王하니 先天八卦 運數짜라 定ᄒᆞᆫ甲子 壬子爲始 슬ᄃᆡ잇나 壬子爲始 쓸ᄃᆡ업고 木德以旺 어진 道德 逆數之運 그가온ᄃᆡ 運數짜라 沉微하여 그러그러 지나드니 運自來而復歟아 水自知而 變歟아 도로先天 回復되야 龍馬負圖 다시나니 順數八卦 그안인가 順數八卦 다시나셔 運數짜라 六十甲子 다시定코 循環之理 理致짜라 ᄉᆡ로壬子 爲始하여 木德以旺 때가오니 仁義道德 時中時가 그안인가 (『龍潭遺詞』 권9[16], 「信和歌」 밑줄 필자)

위의 인용에서 역의 논리가 선천회복사상의 근간이 됨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선천은 하도(河圖)와 연결이 되며 순수지운(順數之運)이다. 순환의 이치에 따라 후천이 오면 역수지운(逆數之運)이 되고, 낙서(洛書)와 연결이 된다. 곧 지금까지의 세상이 이러한 후천 세상이었다. 그러나 도로 선천이 회복되면 임자수(壬子水)로 시작하여 수생목(水生木)의 이치로 목덕이왕(木德以旺)의 때가 다시 오게 된다.

하도와 낙서를 각각 선천과 후천에 연결시키고 팔괘와 오행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초기 동학에 잘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지만,

16) 동학교의 『龍潭遺詞』는 기존 수운의 『龍潭遺詞』를 권1에 포함하고 있고, 권2부터 동학교의 독자적인 가사가 펼쳐진다.

동학교에서는 선천회복의 시운관을 서술하기 위해 이러한 역의 논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2. 시운과 성인

> ①道之大源 出于天 하옵시니 하놀님이 道德主 되시지만 째를짜라 하놀님이 代表닉ᄉᆞ 聖人이라 일홈하고 一一敎訓 傳播하ᄉᆞ ᄉᆞ롬사롬 敎育식혀 盛運盛德 일우나니 ②그런 故로 하놀님이 째를짜라 定히논 聖人스승 道德門 차저가셔 안빈고 안드르면 天地度數 하놀님뜻 모를게니 (중략) 晝夜不徹 빈다히도 道德門 차ᄌᆞ들어 聖人敎訓 系統업시 하날님뜻 모르고셔 빌거드면 잘되기는 姑舍하고 殃及其身 되는빌세 ③自古理致 失數업시 그런고로 하놀님 儒道째는 儒道主人 聖人門을 차ᄌᆞ가셔 誠之又誠 심써빌고 심써빈워 오는運數 昌히엿고 ④하놀님 佛道째는 佛道主人 釋迦如來 부쳐님前 誠之又誠 심써빌고 심써빈워 오는運數 興히엿고 ⑤하놀님이 以西爲坎 西道째는 西道主人 耶蘇氏前 誠之又誠 심써빌고 심써빈워 오는運數 昌히씨나 ⑥至今時節 하놀님이 東道째니 東道主人 聖人門을 차저가셔 誠之又誠 恭敬하여 심써빌고 심써빈워 오는運數 昌히보세(『龍潭遺詞』 권35,「知時明察歌」번호 필자)

하늘은 때에 따라 성인을 내는데(①) 일반인들은 성인의 문하에서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몸에 미친다(②). 이러한 때는 각각 유도(③), 불도(④), 서도(⑤)였고 그에 따라 성인을 내어 가르쳤다. 이제 동도의 때가 왔으니(⑥) 사람들은 그 문하, 곧 동학(혹은 동학교)에 들어가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운수를 인류 역사상의 전시기로 확대하여 각 시기의 성인을 배정하는 것은 초기동학의 운수관을 더욱 확장시키고 성인에 대해 보다 밀접시킨 것이다. 그리고 동도의 때는 곧 선천 회복의 때이고 태초의 천황씨에 이어 수운[17]이 다시 천황씨로 성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때이다. 사람들은 성인의 문하에서 경천순천하여 삼강오륜 인의예지 등의 도덕을 닦게 된다.[18]

---

17) 경우에 따라서는 청림 선생이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

18) 이러한 점을 동학교의 '體天'사상이라고 보았다. 박병훈,「상주 동학교 體天사상 재고」,『宗敎學硏究』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一一曉諭 하는뜻슨 此時時運 後天運數 다盡하고 도로先天 回復되여 天皇氏 木德以旺 밝은運數 我東方의 먼져밝어 堯舜之治 自然되여 太古淳風되련이와 三皇五帝 聖賢들도 敬天順天 하여씨니 우리亦是 이世上에 先聖教訓 거울하여 敬天順天 하온後에 三綱五倫 밝혀두고 仁義禮智 낫타니면 布德天下 될거시니 我國運數 鳥乙矢口(『龍潭遺詞』 권2, 「신심시경가」)

이런 한편 성인문에 들어가 배우는 것을 강조하여 혼자 배우는 것을 경계시켰고, 성인문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한 경고를 내린다. 곧 하늘이 그를 죽일 것〔天必誅之〕이라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3. 괴질(怪疾)과 천필주지(天必誅之): 비기도참논리의 전유와 문하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①自古由來 聖經賢傳 傳ᄒᆞᆫ文券 一一曉諭 傳ᄒᆞᆫ말숨 天地度數 宛然하고 日月造化 明明하고 四時盛衰 次序잇셔 明明其德 하라하고 거울갓치 밝혀ᄂᆡ여 傳之又傳 傳히썬만 아는사람 몃몃치며 이럴좃처 行할사람 몃몃친고 알고셔 行할사ᄅᆞᆷ 行할틔나 工夫업셔 몰은사람 虛荒타 하리로다 ②그는ᄯᅩ한 그러하나 東國讖書 傳ᄒᆞᆫ글에 松松家家 말하기ᄂᆞᆫ 若干或是 어진ᄉᆞᄅᆞᆷ ᄭᅵ닷고셔 紛紛時期 當하거든 失數업시 施行히여 사ᄅᆞᆷ사ᄅᆞᆷ 살어나기 바라고셔 傳히씨되 아는사ᄅᆞᆷ 알엇지만 世上사ᄅᆞᆷ 松松家家 지난後에 알어써든 亞磨道 此世上을 譬喩히여 傳ᄒᆞᆫ말숨 弓弓乙乙 利在田田 十勝之地 하련이와 ᄭᅢ모르ᄂᆞᆫ 世上사ᄅᆞᆷ 亞務理 生覺히도 紛紛時期 지ᄂᆞᆫ後에 알ᄭᆞ부다 (중략) ③御化世上 사ᄅᆞᆷ덜아 이럴좃처 生覺하여 後悔업게 하ᄌᆞ하면 聖人門下 受學하여 安心正氣 修身히셔 繼天立極 第一일세(『龍潭遺詞』 권34, 「弓乙十勝歌」 변호 필자)

①에서는 예로부터 성현들이 지어 전해지는 경전에 '천지도수'·'일월조화'·'사시성쇠'로 일컬어지는 시운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도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명명기덕')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적다. ②에서는 동국참서 또한 어려운 때('분분시기')를 당할 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전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

다. 성인들의 경전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전 혼란의 때를 동국참서의 예언을 통해 피한 것처럼, 성인문하(동학교)에 수학하여 수신을 통해 계천입극하여 난세에 후회가 없도록 하라고 역설하고 있다(③).

> 仁義禮智 직혀ᄂᆡ여 元亨利貞 行커듸면 利在弓弓 알써시오 利在弓弓 알거듸면 靑林道士 만날테니 이글보고 入道하쇼 (중략) 밋기만 밋을진더 凶年怪疾 念慮할ᄭᆞ (중략) 一心工夫 人和하면 牛性在野 알써시요 合其德而正心이면 道下地가 이거시라 須從白兎 走靑林을 道人외에 뉘가알ᄭᆞ (중략) 有福者ᄂᆞᆫ 入道하고 不入者는 無福이라 疑訝잇ᄂᆞᆫ 그사ᄅᆞᆷ은 (중략) 天必誅之 무셥써라 天網恢恢 疎不漏라 (중략) 順天者는 安存하고 逆天者는 必亡이라(『龍潭遺詞』 권2, 「知止歌」 밑줄 필자)

'利在弓弓', '牛性在野', '道下地', '須從白兎走靑林' 등의 용어는 정감록류의 비기도참에서 흔히 나오는 용어들이다. 이들 용어는 그 뜻을 명확히 알기 어렵기에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전유(專有)가 가능하다. "利在弓弓 알거듸면 靑林道士 만날테니 이글보고 入道하쇼"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학교에서는 정감록류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끌여 들여 와서 자신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하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들어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天必誅之'[19]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경계하도록 한다. 괴질에 대한 실감 나는 표현을 아래에 인용해 보고자 한다.

> 이와갓치 죠흔선약 무궁무궁 전히여셔 졔인질병 하여보셰 (중략) 긔험하다 긔험하다 괴질운수 긔험하다 십이졔국 괴질운수 읏지그리 긔험ᄒᆞᆫ고 안져ᄯᆞ죽고 자다죽고 가다죽고 셧다죽고 뛰다죽고 이리죽고 져리죽고 이와갓치 긔험ᄒᆞᆫ들 세상사람 계뉘알ᄭᆞ 실푸고 가련하다 이도역시 시운이라 익달히도 할길읍다 어질다 이내버즌 이글보고 잇지말고 슈신졔가 하여ᄂᆡ여 졍심졍긔 하오며는 이갓흔 년년괴질 죽을념려 잇실손가(『龍潭遺詞』

19) 동학교의 『龍潭遺詞』에는 '天必誅之' 용어 외에도 '天必戮之'의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이들 용어들은 『明心寶鑑』 「天命篇」에 나오는 다음 구절과 연결된다. "益智書云, 惡鑵若滿, 天必誅之. 莊子曰, 若人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戮之." 동학교에서는 괴질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

권3, 「경심장」)

결국 동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성립한다고 하겠다.

후 천	⇒	‘도로先天 回復’과 괴질운수	⇒	청림- ‘敬天順天’, ‘體天’	⇒	선 천

〈도표3. 동학교의 시운관〉

이러한 도식은 위에서 보았던 초기 동학의 구조를 잇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하겠는데 정감록류의 비기도참 논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괴질 등을 보다 강조하는 것에서 그러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Ⅳ. 결론

이전 동학교의 체천에 대한 본인의 연구에서 성인과 하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시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초기동학의 시운관을 고찰한 뒤 동학교에서의 시운관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역의 논리와 정감록류의 비기도참이 더욱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초기동학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였으며, 선천회복 가운데 성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 중 괴질운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아직 일고찰에 불과하며 동학교의 선천회복사상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동학교는 방대한 자료를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 학계의 면밀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한국 근대의 종교지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리 매김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들어 동학교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제들이 하나 둘 풀려나가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초기 동학, 후기 동학, 상주 동학교, 동학 가사, 선천회복, 후천개벽, 다시개벽, 괴질운수, 윤회시운, 성인

투고일: 2015.10.7. 심사종료일: 2015.10.23. 게재확정일: 2015.11.14.

참고문헌

〈자료류〉
『東經大全』(계미 중춘판)
『龍潭遺詞』(계미 중추판)
「海月神師法說」, 『천도교경전 공부하기(증보판)』. 라명재 주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가사문학대계: 東學歌辭』Ⅰ·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국역 상주동학경전』. 김문기 역주. 상주: 상주시;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동학가사』1-4. 김문기 주해. 상주: 상주시;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12.
『明心寶鑑』
『민족종교의 모태 정감록』. 양태진 역주. 서울: 예나루, 2013.

〈연구서류〉
김문기·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9 (2006): 161-205.
김상일. 「상주지역 동학교단의 활동과 동학가사」. 『동학학보』 12 (2006): 47-210.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박병훈. 「상주 동학교 體天사상 재고」. 『宗敎學硏究』 32 (2014): 73-90.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서울: 푸른역사, 2012.
최원식. 「동학가사 해제」. 『가사문학대계1: 동학가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초기동학 및 후기동학의 사상과 의례』. 서울: 민속원, 2009.
한우근. 「東學思想의 本質」. 『동방학지』 10 (1969): 37-74.

〈Abstract〉

A Study on the Thought of Return to Former Heaven(先天回復) of Donghakkyo (東學敎)

ByoungHoon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dea about relationship between era and world in Donghakkyo東學敎 is different from other new religions in modern Korea. Most of new religions think that this world, Former Heaven, is going to the Great Opening Era of the Latter Heaven. Donghakkyo, on the contrary to this, thinks that this world, Latter Heaven, is returning to Former Heaven. Dealing with these differences, this article says that the thought of returning to Former Heaven in Donghakkyo was already latent in the Early Donghak(19C). Although writings of divination such as Jeonggamnok(鄭鑑錄) and I-Ching philosophy were added to scriptures of Donghakkyo, the basic idea is similar to Early Donghak.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the saint in returning to Former Heaven.

Key words: Donghak from early time, Donghak of the latter period, Donghakkyo(東學敎), Donghak Gasa, Returning to Former Heaven(先天回復), Unidentified Epidemic, the Eternal Cycle, the Great Opening Era of the Latter Heaven(後天開闢), the Saint